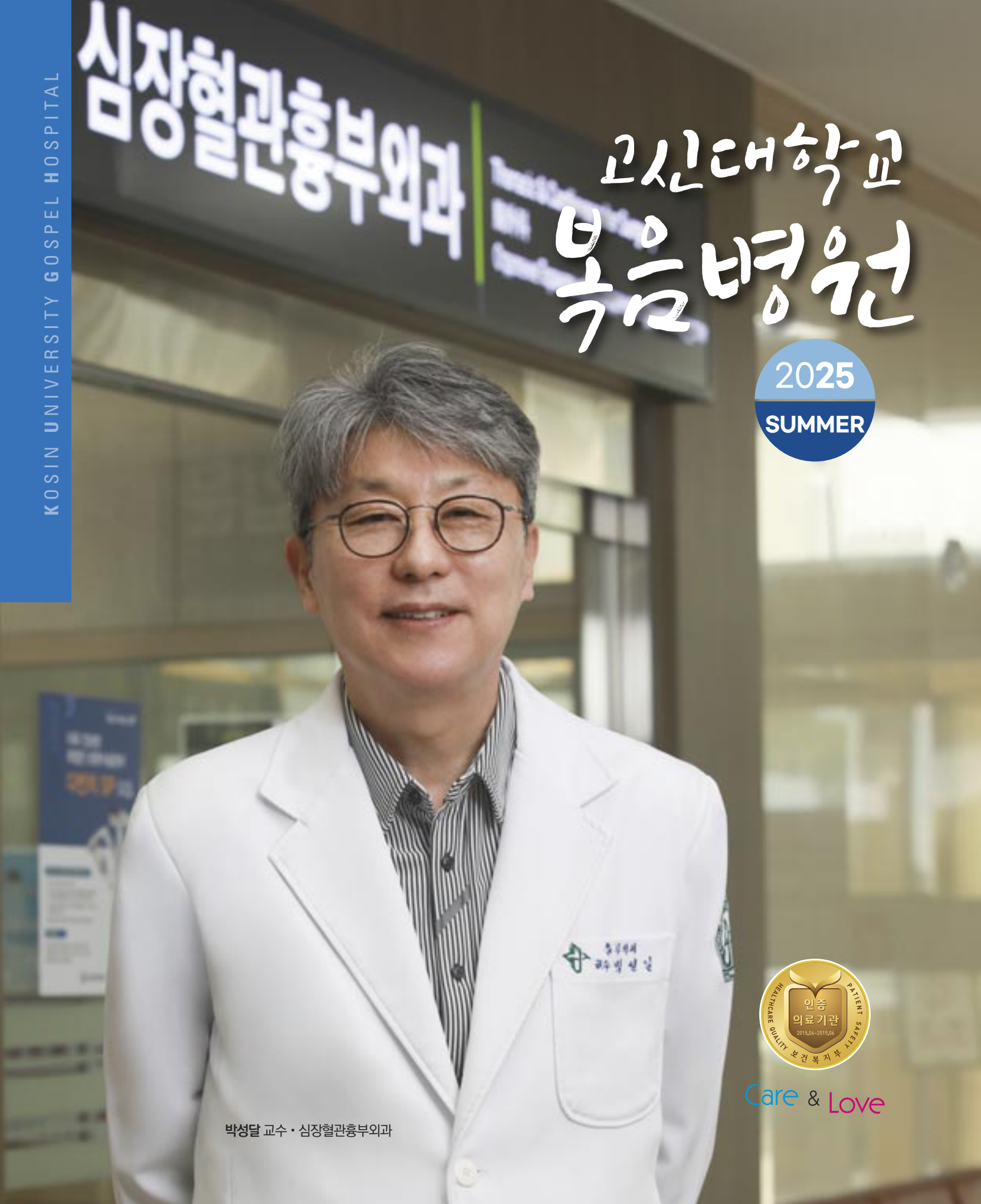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025 SUMMER



박성달 교수 • 심장혈관흉부외과

인증 의료기관 2015.06~2019.06 보건복지부 HEALTHCARE QUALITY PATIENT SAFETY

Care & Love

원고모집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환우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사연은 병원 소식지에 싣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분량** : A4 2~3매의 원고
- **사연 보내실 곳** : pr3700@daum.net 또는 고객지원센터(3동1층)

독자QUIZ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병원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병원보에 모든 **정답**이 있는 **답**이 보이는 **퀴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3명을 추첨하여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응답기간 : 2025년 8월 29일(금)까지
추첨결과 : 2025년 9월 중

지금 바로 카메라를 열어
Quiz 정답을 남겨주세요

독자퀴즈 바로가기

Contents

Kosin Spirit

04 **복음병원의 역사적 의미** 김영대 목사 • 원목실장
06 **40년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사의 길을 걸어온 박성달 교수님 인터뷰**
08 **필리핀 의료선교 후기 #2 나의 작은 손길, 하나님의 큰 계획** 이원정 • 의과대학 본과2학년

Medical Essay

10 **류마티스관절염은 단순한 관절염이 아닌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입니다**
김근태 교수□류마티스내과
13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 환자를 위한 고압산소치료** 유제상 교수 • 방사선종양학과

Culture & Life

16 **미국에서 온 편지 #4** 서광일 교수 • 간담췌내과
20 **자, 이제 기도만 하세요** 장윤선
23 **오월의 장미는 피었건만** 김희자 • 수필작가
26 **햇살과 피톤치드 가득한…우리 동네 엄광산** 노경만 산 • 여행작가

Kosin Inside

30 **33년, 은혜의 시간** 김성국 • 행정처장
34 **세 번째 우.부.소.** 심영옥 센터장 • 진료협력센터
36 **믿음직한 진료, 마음을 다한 치유** 김가연 간호사 • 간호부
38 **칭찬릴레이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서'**
40 **우리 병원 친절직원**
42 **포커스뷰**
46 **+ KOSin 사랑in(2p)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
48 **원목실 추천도서**
49 **진료를 시작합니다**

50 **진료시간표**

2025. **SUMMER**

발행인 최종순 | **발행일** 2025년 6월 | **편집인** 이형석
발행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협력홍보실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장기려로) 262 | 051)990-3700~2 | www.kosinmed.or.kr
개원일 1951. 6. 21
디자인·인쇄 현대출판인쇄사 051)464-5667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용한 읽을거리와 건강정보를 담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보는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오니 주위 분들과 함께 읽으시길 바라며, 홈페이지(www.kosinmed.or.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원보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책에 관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협력홍보실(051-990-3700~2)로 연락해 주십시오.

복음병원의 역사적 의미

글 | 김영대 목사 • 원목실장

이 지역에서 우리 병원이 독보적입니다. 현대 의학이 없었던 조선 땅에, 서양 의사들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을 필두로 해서, 주변 지역에 병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이 병원에 대한 향수가 깊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반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역사 박물관에 전시된 여러 물건들을 통해, 지난 역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전주 예수병원, 광주 기독병원, 안동 성소병원 등, 병원 역사는 초기 선교 역사를 보여줍니다. 다양한 자료와 역사적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의 건물과 의미는 이미 지역사회의 근대 유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의 영향력 또한 지대합니다. 기독 병원은 교회 역사의 중요한 근거지이고, 초기 선교 역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독 병원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금이 해외에서 들어왔고, 병원의 성장과 함께 한국 기독교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없었고, 많은 환자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복음병원은 한국인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한국인들의 손에서 경영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얼마 되지 않았던 그때,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모두가 가난했던 그때, 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피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부산 땅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세운 기독병원이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했고, 모든 사람이 도움이 절실했던 그 시대에, 무료로 치료하는 병원을 지향했습니다. 너무 많은 편찮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료하는 숫자를 제한했습니다. 복음병원을 통해 기독교의 박애정신을 드러냈습니다. 무료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몰려 온 것이 아니라, 외과는 장기려 박사님과 내

과는 전종휘 박사님께서 잘 치료하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으로, 각 의과대학이 전시연합의과대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 연합 의대의 실습 장소가 복음병원이었습니다. 한국 기독인들이 세운 복음병원은, 한국 기독교의 이상과 정신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복음병원은 다른 기독병원에 비해 역사적 기록이 적습니다. 그것은 복음병원의 역사적 의미가 미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들 사이 상호작용의 부단한 과정을 설명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가 역사입니다. 교회가 경영하는 복음병원의 독특성 때문에 다양한 역사학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음병원과 장기려 박사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과 귀감이 되고도 남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복음병원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시점입니다. 신약의 산상수훈을 삶에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했던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복음병원의 역사입니다. 기독병원의 바른 정체성을 배울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History라고 하는데 역사의 정점이 His Story,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역사들, 오신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오늘의 일들,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지는 내일을 역사로 설명합니다.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반영하기 위해 '영아와 유아의 찬미'를 외친 장기려 박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병원이 지향하였던 그 시대 정신이 오늘 복음병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복음병원을 만들어 갈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제의 복음병원이 외치는 그 요구가 오늘의 복음병원에 나타나고, 우리들의 소원과 바람이, 내일의 복음병원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병원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존재하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Christ is all, and is in all)"

골로새서 3:11b

40년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사의 길을 걸어온 박성달 교수님 인터뷰

Q _ 교수님, 긴 시간 고신대학교복음병원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느끼신 점을 들려주신다면요?

40년이라는 시간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참 어렵네요. 돌이켜보면 제가 의사가 되었다는 것, 또 그 중에서도 흉부외과라는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 제게는 과분한 일이었습니다. 흉부외과는 언제나 어렵고, 위험한 수술이 많은 진료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탈 없이 환자 곁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스스로 의사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그 부족함을 채워준 건 결국 환자분들이었습니다.

Q _ 정말 진심 어린 말씀입니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나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몇 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부부가 동시에 폐암 진단을 받고, 일주일 간격으로 수술을 받았던 경우가 있었어요. 두 분이 같은 병실에서 회복하며 서로를 격려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또 한 번은 고령의 남자 환자분이 있었는데, 수술 후 합병증으로 회복이 어렵다는 예상과 달리, 정말 열심히 재활에 임하시고 결국 퇴원하셨어요. 외래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는 서로 부둥켜안고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술을 몇 차례 반복하며 암을 이겨낸 분도 계셨고요. 이런 기억들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Q _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교수님,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해 어떤 점을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폐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발견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엑스레이로는 작은 결절을 놓치기 쉽지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Interview

요즘은 저선량 흉부 CT가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방사선 노출도 적어서 부담이 덜하면서도, 조기에 폐암을 발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검진을 미루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Q_ 마지막으로 우리 병원 동료들과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바로 지금의 병원 응급실 자리, 암남동 34번지였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로 병원에 더 각별한 애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단지 의료기관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소명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많은 이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온 병원이죠. 때로는 외부 환경이나 경영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구성원들이 병원의 설립 이념을 지켜가며 이끌어온 모습에 늘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며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는 그 의미를 되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료하고, 가르치고, 선교하는 병원이라는 본래의 정신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의 말

제2대 복음병원장이자 의과대학 설립에 기여하고, 1981년부터 제1 · 2 · 5대 고신의료원장과 초대 의학부장, 의무부총장을 역임하신 故 박영훈 원장님은 박성달 교수님의 선친이셨습니다. 박성달 교수님은 선친의 뒤를 이어, 의술뿐 아니라 사람을 향한 깊은 진심으로 환자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을 지켜오셨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정체성과 정신을 몸소 살아낸 그 시간들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교수님의 앞날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인터뷰 영상 바로가기 ▶

박성달 교수 | 심장혈관흉부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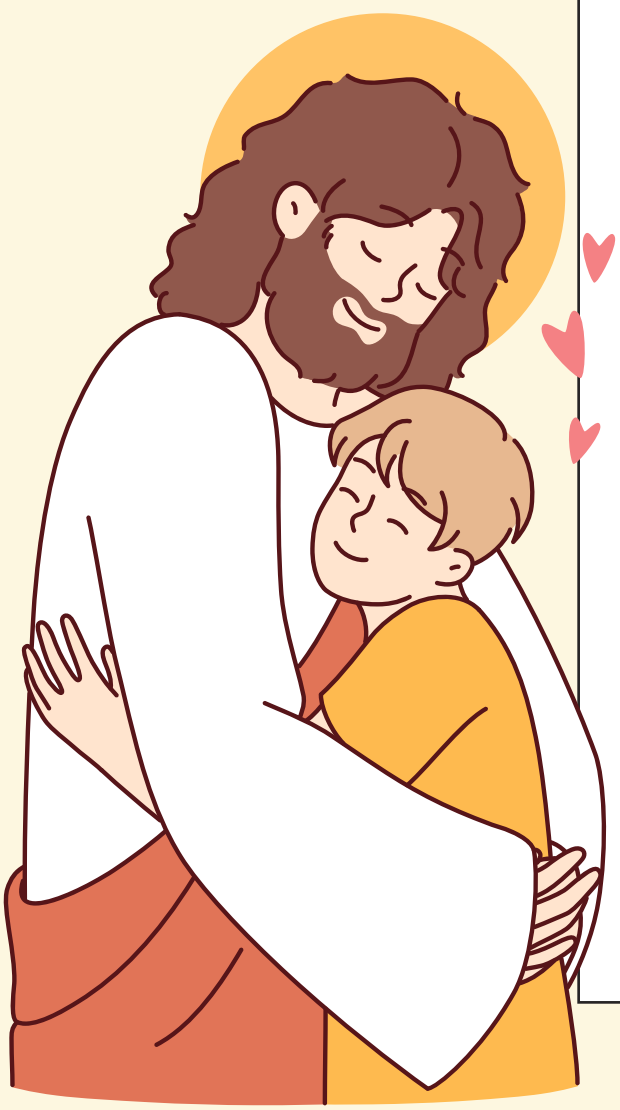
전문진료분야 | 일반흉부, 폐암, 종격동종양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필리핀 의료선교 후기#2

나의 작은 손길, 하나님의 큰 계획

글 | **이원정** • 의과대학 본관 2학년



지난해, 학교를 잠시 휴학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여름에는 남아공으로의 의료선교를 다녀오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부족한 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선교의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번 겨울에는 필리핀 의료선교에 자원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약국 부서에서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지인 약사 한 분과 단둘이 약국을 운영해야 했기에, 언어 장벽과 약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첫날 이후, 약 리스트를 하나하나 공부하고 익히며 준비해 나갔고, 현지 약사분께 물어보며 배우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 방문한 '아파리 교회'에서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처방에 따라 약을 전달하며, 현지 약사님과의 호흡이 척척 맞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역에 보탬이 되고 있음을 체험하며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후 '라굼 교회'와 '바씨 교회'에서도 약사님께서 저를 신뢰해 주셔서, 간호학과 3학년 학생과 고등학생 친구와 함께 팀으로 더 원활하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약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자의 상태와 약효를 고려해 대체 가능한 약을 안내하는 등의 판단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사역자로서의 책임감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약국 부서로 배정된 것이 아니었기에, 선교 초

기에는 어디서 어떤 일을 맡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현지인 분 혼자서 약국 일을 운영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 자원하게 되었고, 그것이 점차 하나의 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작은 결단과 순종이 선교 사역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을 느끼며, 크나큰 감사와 보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마지막 바씨 교회에서 진행된 문화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중풍병자 이야기'라는 제목의 뮤지컬에서 예수님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무대에서의 첫 연기였기에 부담감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팀원들과 함께 연습을 이어가며 완성된 무대를 올릴 수 있었고, 필리핀의 여러 지역에서 총 다섯 차례 공연을 진행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공연을 통해 웃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모습을 보며, 선교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 **작은 결단과 순종이 선교 사역의 일부분으로**
> **자리매김하게 되었음을 느끼며,**
> **크나큰 감사와 보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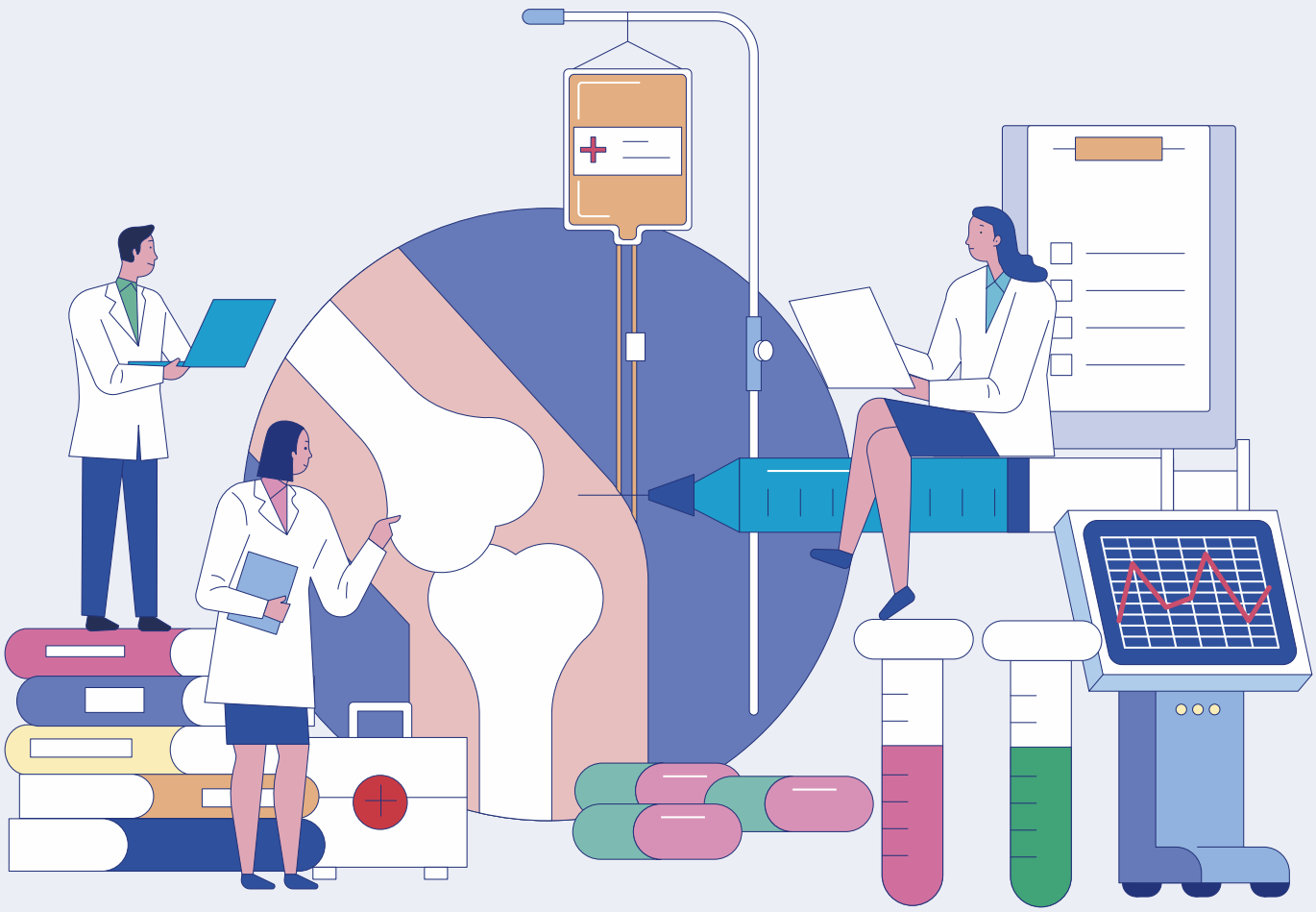
이번 선교 여정 동안 필리핀의 순수하고 따뜻한 아이들, 이동 중 겪었던 크고 작은 어려움, 그리고 밤하늘 아래에서 함께 불렀던 찬양의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타국에서 온 낯선 학생인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준 그들의 환대는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무엇보다, 그곳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태도는 제가 잊고 지냈던 신앙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려 했던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고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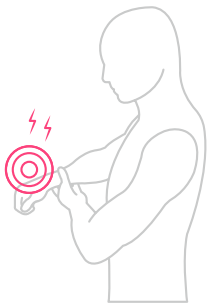
저희의 작은 섬김이 모여 필리핀에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언젠가 그곳 사회와 문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꽃피우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7일간의 여정을 통해, 앞으로의 필리핀 선교와 하나님께서 이끄실 또 다른 길들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단순한 관절염이 아닌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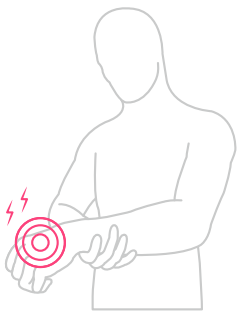
글 | 김근태 교수 • 류마티스내과



"류마티스관절염, 단순히 관절만의 병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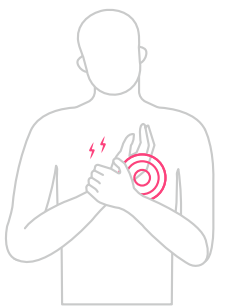


최근 광고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류마티스'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류마티스관절염을 단순히 관절이 아픈 병,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류마티스관절염은 단순한 관절염이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가면역질환**입니다. 이 질환의 본질을 바로 아는 것이 치료와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몸에는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면역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면역 시스템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못 작동하게 되면, 몸의 일부 조직을 마치 적으로 착각해 스스로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자가면역'이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들을 **자가면역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주요 표적은 관절이지만, 심한 경우 **심장, 폐, 신장, 눈, 혈관, 피부 등 전신의 장기**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 질환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이 흡연, 비만, 구강 염증(치주염),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등 다양한 환경 요인에 노출되면서 질병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특히 손가락, 손목, 발가락, 발목 등 작은 관절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아침에 관절이 "1시간 이상 뻣뻣하게 굳는 느낌(조조강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일반적인 관절염과 구별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절이 붓고 통증이 심해지며, 변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치료가 늦어질 경우 회복이 어려운 **비가역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은 단 하나의 검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혈액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MRI 등 다양한 검사를 종합하고, 증상의 양상과 지속 기간을 함께 고려해 전문의가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로 나뉩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전신을 침범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므로, 약물치료를 통해 고장 난 면역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조절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염증을 억제하고 질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사용되는 약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전통적인 질병 완화제 :** 메토트렉세이트, 설파살라진, 히드록시클로로퀸, 레플루노마이드 등
- **생물학적 제제 :** TNF 억제제, 토실리주맙, 아바타셉트, 리툭시맙 등
- **표적치료제 :** 토파시티닙, 우파다시티닙, 바리시티닙, 필고티닙 등

이들 약제는 질병 억제 효과가 뛰어나지만, 부작용이나 비용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 치료**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꾸준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게는 치료 반응이 미미하거나 심각한 관절 손상, 전신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심혈관질환이나 폐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다소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치료법의 발전으로 예후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만 잘 이뤄진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건강한 삶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질환의 원인과 완치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류마티스관절염이 '조절 가능한 병'을 넘어 '완치 가능한 병'이 되는 날이 오리라 기대합니다.

김근태 교수 | 류마티스내과

전문진료분야 |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건선관절염, 전신홍반루푸스, 통풍, 골관절염, 섬유근통, 혈관염, 베체트병, 관절초음파클리닉, 희귀질환 클리닉 : 매주 금요일 오전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외래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 환자를 위한 고압산소치료(Hyperbaric Oxygen Therapy)

글 | **유제상** 교수 • 방사선종양학과

1. 고압산소치료란 무엇인가요?

고압산소치료는 특수 제작된 치료용 챔버 안에서 **대기압보다 1.5~3배 높은 압력**으로 **100% 순수 산소를 흡입**하는 치료입니다.

평소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는 약 21%의 산소만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질소와 기타 기체입니다. 하지만 고압산소치료는 **산소만으로 구성된 공기**를 높은 압력에서 흡입하게 하여, 혈액과 조직 속으로 산소가 더 많이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대기 중 산소 농도

고압산소치료

2. 방사선치료와 산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방사선치료(Radiation Therapy)는 고선량의 방사선으로 암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사멸시키는 치료입니다. 이때 방사선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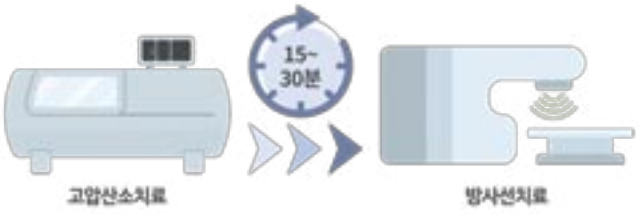
방사선이 암세포 DNA를 손상시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접적인 반응: 방사선이 암세포 DNA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는 방법입니다.

간접적인 반응: 방사선이 몸 속의 물 분자를 분해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생성된 활성산소가 DNA를 공격해서 손상을 유발하는데, 간접적인 반응으로 인한 방사선 손상은 전체 방사선손상의 약 2/3를 차지하며 산소가 많을수록 지속시간 및 반응성이 향상됩니다.

즉, 방사선이 암 세포를 공격할 때 산소가 많을수록 더 강한 타격을 줄 수 있고 이것을 "**산소 강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3. 고압산소치료는 방사선치료의 효과를 어떻게 높이나요?



하지만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빠르게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식 중인 영역에는 신생혈관이 생성되어 산소가 풍부하지만 종양의 중심으로 갈수록 혈액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저산소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저산소 상태에서는 방사선의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고압산소치료는 방사선치료 전에 암세포 주변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방사선의 치료 효과를 높여줍니다. 단, 다만 이 방법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고압 산소 치료 후 15~30분 이내에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지 않으면 상승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국내외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물리적 거리 등의 문제로 이 시간 내에 두 치료를 연이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방사선종양학과와 고압산소치료실이 같은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두 치료 간 시간 간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치료의 스케쥴 관리를 통해 고압산소치료를 이용한 방사선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치료 프로토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어떤 암에서 효과가 좋나요?

고압산소치료와 방사선치료의 병행치료는 두경부암, 전립선암을 포함한 요로계암, 직장암 등 저산소 부위가 많거나 방사선에 잘 반응하지 않는 암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서도 골반암, 방광암, 자궁경부암에서 방사선치료 전 고압산소치료를 받은 환자 군에서 국소제어율과 생존율이 향상된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두경부암의 재발성 치료에서도 고압산소치료가 방사선 효과를 높이는 보조 수단으로 효과적인 것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 치료 실패 후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소 증강 효과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5.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하는 조직 손상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고압산소치료는 방사선 치료로 인해 혈관, 피부 손상 및 조직 괴사가 생긴 부위에서 세포 재생을 유도합니다. 특히 골반, 두경부, 직장 등 특정 부위의 방사선 치료 후에는 **방사선 골괴사(Radiation-induced osteonecrosis), 방사선 방광염, 방사선 직장염** 등의 **만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고압산소치료는 손상된 조직과 괴사된 부위에 산소를 집중 공급하고, 신생 혈관 형성을 촉진해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고압산소치료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여러 나라의 보건 당국으로부터 다양한 적응증에 대해 승인된 치료법입니다. 특히 방사선 유발 조직 괴사(예: 하악골 괴사)나 만성 상처, 창상 회복 지연, 허혈성 조직 손상에 대해 상당한 임상적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효과 덕분에 암 치료 이후 회복 단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6. 고압산소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치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뤄집니다.

[외래 진료실]

평가 및 적응증 확인: 고압산소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부작용 위험성이 높지는 않은지 사전 의학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고압산소 치료실]

- 환자는 치료용 고압산소챔버에 입장하여 좌석 또는 침대에 눕습니다.
- 압력 상승 및 산소 투여: 챔버 내부의 기압을 서서히 높여 마스크 또는 후드를 통해 100% 산소를 흡입합니다.
  보통 한 세션은 약 60~90분 정도 소요됩니다.
- 치료 횟수: 치료 목표에 따라 10회에서 많게는 40회 이상 시행하기도 합니다.

7. 고압산소치료의 부작용과 주의사항

고압산소치료는 비교적 안전한 치료로 간주되지만, 일부 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귀 통증**: 압력 변화에 따른 이관 장애
- **산소 중독**: 매우 드물지만 고농도 산소 흡입 시 발생 가능
- **폐 손상**: 기저 폐질환이 있는 경우 주의 필요
- **폐쇄공포증**: 밀폐된 치료 공간에 대한 심리적 불안

대부분 이러한 위험은 전문 의료진의 감독 하에 최소화될 수 있으며, 사전 평가를 통해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8. 마무리하며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 환자의 치료 효과 상승 및 치료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용한 치료 방법으로서의 고압산소치료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고압산소치료는 암을 직접 치료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방사선치료의 효과를 높여 줄 수 있고 암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합병증들을 완화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 치료 이후 회복이 지연되거나 조직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고압산소치료는 조직 재생과 상처 치유, 통증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적합한 상황에서 적절한 고압산소치료의 사용은 방사선치료를 받거나 받은 암 환자에게 보조치료로서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유제상 교수 |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진료분야 | 두경부암, 폐암, 흉선암, 식도암, 비뇨기암, 림프종, 혈액암, 피부암, 근골격계종양,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외래
오후		외래			외래

미국에서 온 편지 #4

글 | 서광일 교수 • 간담췌내과

학교와 병원의 배려로 저는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교에 1년간 방문교수 자격으로 연수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 의과대학 부속병원 소화기 파트에서 간이식 및 자가면역 간질환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교수님과 매칭되어, 진료와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바이러스 간염이 흔한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는 자가면역 관련 간질환 환자가 많은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희귀한 질환으로 분류되는 자가면역 환자들을 가까이서 만나고, 실제 진료 패턴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연수를 통해 얻게 된 큰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임상 경험과 연결하여 국내(복음병원) 자가면역 환자의 자료와 미국 (버지니아 의과대학 병원) 자가면역 환자들의 자료를 후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의 다양한 인종, 나이, 성별뿐 아니라 조직학적인 차이를 확인하고 임상 경과를 비교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자가면역 간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필수적이어서 이곳에서는 간조직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간조직 병리 소견이 진료에 매우 중요하므로 매주 병리 전문의와 함께 슬라이드를 직접 보면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상과 병리의 긴밀한 연계는 매우 유익했고, 부러움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뇌사자 간 이식이 활발하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식 대기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공여자(marginal donor)를 통해서 간 이식을 시행하는데 놀랍게도 HCV RNA 양성뿐 아니라 HBV DNA 양성인 뇌사자에게서도 간을 받아서 이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항바이러스만 잘 복용하면 장기적인 예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양성인 경우 공여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국내와 비교했을 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식 환자 진료는 진료 의사뿐 아니라 영양 전문가, 사회복지사, 담당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주기적으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도 알코올로 인한 간질환으로 간 이식을 시행 받은 환자들이 많았는데, 이식 후에도 다학제 진료를 지속하며 장기적 예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 역시 이식 환자의 임상 경과를 분석하는 후향적 연구에 참여하며, 실제 이식 준비 및 수술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기록한 환자의 삶의 이야기들을 읽으며,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배경에서 병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병을 겪는 인간의 아픔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연구를 진행할 때 특이했던 점은 의과대학 3학년 학생이 연구 데이터 정리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은 교수와 함께 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학회에 초록을 제출하며, 직접 학회에 참석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과대학도 이러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의료계 상황이 나아지면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암 관련 컨퍼런스(tumor board)는 매주 금요일 아침 영상의학과 교수님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간암의 전반적인 치료는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병원에서 간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수준이 이에 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간암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한국의 간암 치료에 대해 전임의 대상으로 강의를 제안받아 간단

한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임의들의 질문 수준이 매우 높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국내에서는 아직 급여기준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는 방사선 색전술이 미국에서는 이미 매우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존 색전술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매우 뛰어나 국내에서도 점차 각광받는 치료인데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임상 경과도 좋은 점을 직접 보니 부러웠습니다.

입원환자 진료는 hospitalist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간질환 환자가 입원하면 입원 전담내과의가 주치의로서 진료를 담당하고, 교수는 협진 형식으로 치료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수들이 연구와 교육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회진에 참여해보니 전임의 및 전공의와 대화하는데 회진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단순 의학 지식뿐 아니라 최신 연구 주제까지 아침 회진 시간에 다루는 점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한 환자에게 너무 많은 수의 전문의, 간호사 그리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의료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이러한 제도를 국내에 그대로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국내 실정에 맞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지기 어려웠던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도 보낼 수 있었고, 책에서만 보던 명문 대학과 여행지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꿈같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은 복된 연수 기간이 되었습니다. 연수의 기회를 주신 학교와 병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통해 화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광일 교수 | 간담췌내과

□ **전문진료분야**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독자 에세이 #02

자, 이제 기도만 하세요

글 | 장윤선

추석이 막 지난 10월의 어느 날. 나는 오른쪽 가슴 위쪽에 심어져있던 케모포트를 제거하기 위해 고신대복음병원 인터벤션실에 있는 수술대 위에 누워있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제거해야하는 케모포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사진을 찍고 의료진들을 기다리며 아주 잠시 방에 혼자 남았다. 수술방의 서늘한 기운이 내 몸을 감싸자 지난 기억이 나를 찾아왔다.

글을 쓰며 꼽아보니 8년이었다. 8년 전, 내가 막 서른다섯 살이 되던 해 1월의 일이다. 몇 년 전부터 나를 주기적으로 괴롭히던 생리불순 때문에 찾았던 2차 병원에서 자궁내막암 판정을 받았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범하게 살던 미혼 여성은 말로만 듣던 암환자가 됐다.

"환자분, 되도록이면 빨리 대학병원에 가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2차 병원에서 만난 의사는 앞으로 내가 겪을 일을 알고 있어서인지 환자인 나보다 더 비장해보였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을 찾았다. 일흔 살을 앞에 둔 엄마와 젊은 딸은 작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담당 의사를 처음 만났다. 튀어 나올 것 같은 심장과 차가워진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두 손을 모으고 의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

"일단 수술 날짜부터 잡읍시다. 그리고 수술 전에 각종 검사들은 다 마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담담하게 일정을 말해주는 의사에게 엄마와 나는 동시에 대답했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내 몸에 쳐들어온 적과 싸우듯 암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병원을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검사들을 받고 예정된 수술을 받았다. 세 시간이 넘는 수술과 여섯 번의 항암 치료, 스물여덟 번의 방사선 치료를 견딘 나는 드디어 병원에서 풀려났다. 3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를 해야 하기는 했지만 다시 찾은 일상에 그저 기쁘기만 했다. 새 해를 맞이하며 무사히 서른여섯 살이 된 것에 안도했다. 젊은 몸은 수술과 치료로 망가진 스스로를 빨리 회복시켜주었고 조금씩 미래도 꿈꿀 수 있었다. 따뜻한 봄이 되면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다시 암이 찾아왔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다. 숨어있던 암세포가 남겨두었던 난소에 문제를 일으켰다. 재발이었다. 두 번째는 처음보다 심각했다. 누워있으면 손에 잡힐 정도로 암 덩어리는 컸고 암이 장을 압박하는 바람에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되었다.

무엇보다 나를 괴롭혔던 것은 기억이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당시 갖게 된 기억들 때문에 나는 잠을 이루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셀 수 없이 반복되는 항암 치료 때문에 망가진 몸으로 죽음을 기다리던 환자들이 밤마다 내 머릿속을 찾아

왔다. 포기해, 그냥 포기하는 게 나와 가족을 위하는 길이야. 어느새 나는 모든 걸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런 상태로 다시 의사 앞에 앉았다.

"선생님, 이렇게 자꾸 재발하고 치료만 반복할 바에야 그냥 버티다가 마지막에 병원신세 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진심이었다. 수없이 반복되는 치료 때문에 고통받는 게 당장 죽는 것 보다 더 두려웠다. 눈물 한 방울 흘릴 힘조차 없던 나는 쥐어짜낸 힘으로 그렇게 말했다.

"수술은 해야만 합니다."

의사는 단호했다. 재발한 위치는 장과 가까웠고 만에 하나 종양이 장을 막아버리면 긴급 수술로 장까지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고 의사의 단호함에 오히려 안심하는 내 자신이 우스울 정도였다. 그렇게 두 번째 전쟁에 임했다. 물론 쉽지 않았다. 다시 만난 적은 더 강해졌고 그 적을 무찌르기 위한 무기인 항암제도 더 독해졌기 때문이었다. 머리카락은 한 올도 남지 않았고 수시로 오한이 들었다. 온몸의 근육들은 주인을 저주하듯 밤마다 울부짖었고 많이 걷지도 못하는데 발톱에는 피고름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고 시간이 가기만을 바랐다.

마침내 예정됐던 여섯 번의 항암 치료가 끝났고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실을 찾았다. 혹시 의사의 입에서 항암 치료를 연장하자는 말이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앉아있었다. 제발, 제발 이대로 치료가 끝났으면.

"환자분, 고생 많았습니다. 환자분도 저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제 그냥 기도하는 것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암이 완치된 것도 아니고 몸에는 심한 후유증이 남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그래, 이제 기도만 하자.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거다. 기도 하자.

그렇게 기도하고 견디며 살았다. 다행히 더 이상의 재발은 없이 오늘까지 살아있다. 수술대 위에 눕는 게 두려워 미루어두었던 케모포트 제거 시술도 받았고 상처도 잘 아물었다. 가족들과 밥을 먹고 TV를 보고 가끔 친구들도 만나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 내가 경험한 기적이다.

시간은 제법 흘렀지만 아직 두렵다. 샤워할 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수술자국과 약해진 체력. 어쩌면 평생 계속 될지도 모르는 정기 검진. 하지만 알고 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란 내가 가진 일상에 감사하고 신에게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다.

오늘도 잘 살아있다. 이 글을 마치고 나면 또 한 번 기도를 해야겠다.

오월의 장미는 피었건만

글 | 김희자 수필가

식전 댓바람부터 통곡하는 소리가 울타리를 넘었다. 참다 참다 서러움이 차오르면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을 부르며 매일 아침 울부짖었다. 평소 그 집에는 기척이 없다. 사람이 사는지 살지 않는지 조용하다. 빈집 같지만, 강 할머니 홀로 수십 년째 살고 계신다.

고향에서 두 번째 맞는 어버이날이다. 마을 청년회와 부녀회에서 어르신들께 달아줄 카네이션을 준비했다. 두레방에서 카네이션과 빵을 나누어 강 할머니 댁으로 향한다. 지렁이처럼 누운 좁다란 골목을 조심스레 걸어 그 집 대문 앞에 섰다. 며칠 전부터 한 송이, 두 송이 피기 시작하던 장미가 며칠 사이 대문간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현관문을 열고 계시냐며 들어선다. 아귀가 맞지 않은 현관문이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를 찾는다. 머리가 헝클어진 강 할머니가 넋을 놓고 마루에 앉아계신다. 아침은 드셨냐며 나는 엉거주춤 마루에 걸터앉는다. 한 술 드셨다며 강 할머니는 머리를 손으로 훑어 내린다. 어버이날이라 마을에서 카네이션을 준비했다며 심장 위 가슴에 달아드렸다. 감정에 북받친 강 할머니는 고맙다고 하시며 금방이라도 곡을 할 태세다.

눈시울이 붉어진 나는 먼 산에 시선을 두며 애먼 말을 꺼내었다. “저 장미는 누가 심었어예?” 대문간에 시선이 간 강 할머니는 “수년 전, 누가 몇 뿌리 주어 심었더니 저래 컸네.” 하시며 설핏 웃는다.

오월은 눈이 호강하는 계절이다. 사람은 가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세상이 멈추어도 산하는 연록이 짙어져 싱그럽다. 자연은 조금도 늦거나 멈추지 않고 우리 앞에 푸름을 쏟아놓는다. 부모는 가정의 하늘. 해와 달을 보고 선한 자연을 느끼며 숨 쉴 수 있음은 한없는 부모님의 은덕 때문이다. 설사 부모님이 가난과 어리석음을 물려주셨다 해도 원망할 일은 아니다.

아들과 마루청에 앉아 바라보았던 앞산이 금세 달라졌다며 강 할머니의 목소리가 또 흐려진다. 외아들을 가슴에 묻은 강 할머니는 시간을 죽여 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차비가 없어 못 오는가. 부르고 불러도 아들이 오지 않는다며 가슴을 뜯는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 법이라더니 아침에 눈을 뜨면 아들의 빈자리가 느껴져 날마다 통곡한다.

보름 전, 집에 온 아들은 “이제 어매와 청에 앉아 저 산을 보는 것도 마지막인 것 같네.”하며 속내를 드러냈다. 그 말을 듣고 놀란 강 할머니는 “이 새끼야,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며 엉덩이를 마구 때렸다. 아들은 어머니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미장원에 다녀오라며 등을 떠밀었다. 그런 아들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으니 어버이날인 오늘은 더 애통한 것이다.

어느 날 느닷없이 닥친 비보처럼, 아들의 병은 급성 암이었다. 급성이라 손을 쓰지 못할 지경이었다. 아들은 망가진 몸이 더는 회복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예정된 운명을 예감하고 마지막으로 고향을 찾았다.

늘 조용하던 그 집에 인기척이 나고 부산했다. 사람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고, 평소와는 달리 밤에 집이 환했다. 아들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다. 어느 날엔 망치 소리가 나더니 고장 난 현관문을 수리하고 보일러 손보는 소리도 났다. 그 집 보일러는 일 년에 몇 번 돌리지 않아 고장이 잦다고 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귀소본능처럼 아들은 고향 집에서 며칠 머물며 엄

마와 마지막 정을 나누었다.

아들이 위독해져 고향을 떠나던 날, 잿빛 하늘에서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골목에 앉았던 몇몇 사람이 웅성거렸다. "젊은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기에 그리 비쩍 말랐겄노. 사립 밖으로 나오는데 걸음을 제대로 못 걷더라."라며 사람들이 안쓰러워했다. 아들은 보호자도 없이 택시를 타고 B 도시로 떠났다. 일이 없어 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틀 후 저녁에 마을 이장님이 비보를 알렸다. 쉰을 갓 넘긴 아들이 몹쓸 병에 걸린 걸 그의 어머니는 모르고 있었다. 병원에 갔던 사람은 그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승을 떠났다.

강 할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골목으로 몰렸다. 어둑한 골목에 모인 사람들은 그 집으로 갔다. 몸이 시원찮은 강 할머니는 아들이 며칠간 지내며 입었던 옷을 붙들고 대성통곡했다. '자식을 잃었는데 무엇이 입에 들어가겄노.' 하면서도 아랫집 숙모는 녹두죽을 쑤었다. 나도 부엌으로 들어가 숙모를 거들었다. 강 할머니는 죽을 드시지 않으려고 했지만, 기운이 있어야 아들을 보낼 게 아니냐며 숟가락을 쥐여 주었다. 이웃들의 권유를 못 이긴 강 할머니는 죽을 겨우 몇 술 떴다.

다음 날 새벽, 그 집으로 가 죽을 데워 드시게 한 후 강 할머니를 장례식장으로 보냈다.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오니 대문간에 아들이 서 있더라고 하며 또 한 번 바닥을 쳤다. 아무도 찾지 않던 그 집에 마을 사람들이 들락거렸다. 나도 찬을 챙겨 수시로 방문했다. 열무김치를 담근 뒷집 엄마도 불쌍하다며 챙겼다.

삶의 풍파에 시달린 자, 그 마음을 푸는 길은 오직 자연에 다가서는 것뿐이다. 눈물 속에서 지내던 강 할머니는 눈만 뜨면 다랑논으로 향했다. 의지할 곳은 터전밖에 없었다. 그 논은 남편이 뱃일하며 번 돈과 김칫거리도 아끼며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터였다. 강 할머니는 그곳에서 종일 기어다니며 일하다가 해가 지면 집으로 왔다. 걷는 것도 시원찮은 사람이 논에서 무얼 했냐고 물으니, 깨를 심었다며 온몸에 묻은 흙을 털었다.

긴 하루를 그렇게라도 보내야 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은 말없이 강 할머니의 땀을 닦아주었다. 집에 홀로 앉아 울기만 하느니 논에서 일하다가 울다가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종일 비어있는 집은 붉은 장미가 지켰다.

마루에 앉아 강 할머니의 넋두리를 듣다 보니 하늘이 흐려진다. 대나무 숲에서 청개구리가 슬피 운다. 이곳에서 가장 가슴을 저리게 하는 것은 청개구리 울음소리다. 청개구리도 비가 오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구슬피 우는데 홀어머니를 두고 떠난 아들의 가슴은 얼마나 미어졌을꼬.

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저리도 고운데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대문간에 핀 붉은 장미가 강 할머니의 핏빛 그리움 같아 오월의 하늘을 본다.

햇살과 피톤치드 가득한…

우리 동네 엄광산

글 | 노경만 산 · 여행작가

엄광산(504m)은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진구 사상구에 걸쳐있는 산으로 금정산맥에 속해 있다. 또한 백양산을 내려온 낙동정맥이 지나가는 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승학산이나 구봉산에 비해 그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주변의 다른 산들에 비해 경치가 빼어나게 보이지 않는 단점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고원견산(**高遠見山**)이라는 옛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높아서 멀리 볼 수 있는 산이다. 물론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숲에 가려서 주변의 풍경이 잘 조망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르고 난 뒤부터는 왜 고원견산이라 불렸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엄광산은 정상 외에 중봉 동봉 등의 봉우리를 품고 있는데, 구봉산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걸으며 각 봉우리마다 부산이 품고 있는 다른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다.

엄광산을 오르는 가장 빠른 길은 구덕령 꽃마을에서 최단거리로 오를 수 있다. 사하구 쪽에서 출발한다면 승학산 시약산 구덕산을 거쳐 연계산행을 할 수 있고, 민주공원에서 봉수대와 구봉산을 지나와 도착할 수도 있다. 또한 안창마을이나 성북고개에서 수정산을 오른 후 이어지는 산행을 할 수도 있고, 동의대학교나 동서대학교를 지나와 엄광산 둘레길을 거쳐 오를 수도 있다.

수정산가족체육공원과 엄광산 둘레길

수정산가족체육공원을 통하여 엄광산을 오르는 길의 시작은 도시철도 1호선 부산진역 1번 출구이다. 차도를 걷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휴포레 아파트 앞에서 동구2번 마을버스를 타고 체육공원 앞에서 내리면 된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서면 쪽에서는 86번, 사상 쪽에서는 186번, 해운대 쪽에서는 38번 버스를 타고 〈수정산가족체육공원〉 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 남포동 쪽에서는 86번 186번, 부산역 쪽에서는 22번 버스를 이용해 〈수정2동〉 정류장에서 내리면 산행을 시작할 수 있다.

수정산가족체육공원을 지나면 포장된 임도를 따라 제법 경사가 있는 길을 오른다. 포장길은 장승테마공원을 지나 〈수정산꿈자람터〉까지 이어진다. 꿈자람터는 원래 지역 주민들이 경작 중이던 밭들이 있던 자리를 동구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야외활동 시설로 최근에 개발을 완료한 시설이다. 그 옆에는 수림정이라 불리는 편백나무 숲이 있는데, 수정산과 엄광산 사이로 골을 이루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쉼터이다.

임도 갈림길에서 구봉산 봉수대로 가는 길과 동의대학교 위에서 엄광산 둘레길로 가는 길이 나뉜다. 또한 그 즈음에서 엄광산을 이루는 봉우리 중 하나인 동봉으로 오르는 길로도 나뉜다.

오르막길을 오르는 산행이 부담스럽다면 동의대학교 위에서부터 동서대학교 위로 연결된 〈엄광산 둘레길〉을 따라 구덕령 꽃마을까지 좀 더 편안한 산책 같은 산행을 즐길 수 있다. 둘레길은 대부분 우거지고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나무 숲이다. 가는 도중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도 있고, 다양한 운동시설도 있고, 시원한 샘물이 샘솟는 약수터도 있다. 그리고 사상이나 학장동 방면에서 학운정과 학장약수터를 거쳐 엄광산으로 오르는 길과도 만날 수 있다.

태양이 걸어가는 길

동봉으로 가는 길은 가야공동묘지를 지나거나 동구에서 조성한 치유의 숲을 지나 구봉산 안부를 통해 오를 수 있다. 제법 가파른 오름길이다. 안부에서는 꽃마을로 가는 다른 둘레길이 있는데, 이 길 역시 울창한 편백나무 숲을 통한다.

동봉에는 널찍한 헬기장이 조성되어 있고, 오르고 나면 마침내 시야가 트이고 각양각색으로 빼어난 부산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북쪽으로 백양산 너머 저 멀리 금정산까지 산그리메가 꿈틀꿈틀 이어지고 가야로가 지나는 시가지의 풍경도 시원하게 보인다.

바로 곁의 중봉은 급하게 내려갔다가 바윗길을 다시 가파르게 올라야한다. 중봉에 서면 동남쪽으로 구봉산에서 이어진 산 능선과, 서구의 시가지 풍경과, 남항대교가 지나는 시원한 바다의 풍경도 일망무제로 보인다. 그리고 부산항대교 너머 동해바다에서 떠올라 서쪽을 향하여 엄광산을 걸어가는 햇살과 동행할 수도 있다. 서쪽으로는 낙동강 너머, 김해평야 너머, 저 먼 산 너머로 지는 저녁놀을 볼 수도 있다. 정상에 도착하면 그 곁의 정자에 하릴없이 앉았다가, 꽃마을 방향으로 길을 잡아 내려가면 산행이 끝난다.

이즈음의 계절엔 우거진 수풀로 인해 시야가 많이 가려져 풍경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속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대신 울창하게 드리운 나무그늘이 강열한 햇살을 가려줘 더 시원한 산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굳이 정상을 오르지 않아도 둘레길을 걸으며 피톤치드에 흠뻑 젖고 청량한 새소리에 취할 수도 있다는 기대. 그래서 꼭 추천 드리고 싶다. 곧 더 더운 날이 찾아오면 멀리 가기보다는 가까운 우리 동네 엄광산으로 오시라고…….

33년,
은혜의 시간

글 | 김성국 · 행정처장

1992년 8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 첫 발을 디딘 지 어느덧 3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음병원은 저에게 단순히 생계를 위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가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들의 아픔을 돌보고,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했습니다.

1993년 8월, 직업환경보건센터에서 병원 재정부로 자리를 옮기며 병원의 재정 운영이라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사명임을 깨닫는 계기였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1983년, 의료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 및 도시 변두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많은 부채와 적자 운영 중인 김해복음병원을 인수하였습니다. 이는 훗날 고신 교단 내 갈등과 무리한 병원의 인수 등이 원인이 되어, 2003년 4월 14일 복음병원의 1차 부도로 이어졌고, 같은 해 5월 9일에는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병원의 부도는 학교법인 고려학원 전체의 부도를 의미하는 상황이었기에, 그 후 교육인적자원부의 관선이사가 파견되었고, 법인 산하 대학과 병원의 경영은 고신총회의 품을 떠나 파견된 관선이사가 직접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은 인력과 재무 구조조정을 겪어야만 했고, 학교법인과 관련된 법적·재정적 문제와 내부 갈등, 수백억 원에 이르는 체불 임금 등으로 인해 병원과 교직원 전체는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병원과 교직원들의 헌신, 고신총회와 산하 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모금으로 약 200억 원의 부채가 상환되었고, 병원은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던 그때의 모습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병원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14년 1월에는 경리과장, 2020년 1월에는 총무부장, 그리고 2023년 7월에는 병원의 전반적인 살림을 맡는 행정처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4년 2월, 필리핀 뚜게가라오에서 의료진들과 함께한 의료선교는 저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현지 의료진, 선교사님들과 함께 환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복음병원이 지켜야 할 본질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입사부터 정년퇴직을 앞둔 이 순간까지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병원에서의 33년은 저에게 일터를 넘어 신앙의 훈련장이자 사명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복음병원에서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33년의 직장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도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주시고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음병원이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며, 의료선교사를 길러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서를 소개합니다

“환자를 중심으로, 신뢰를 연결하다”

진료협력센터 이야기

1 진료협력센터,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연결을 돕는 조용한 동력

진료협력센터는 병원의 가장 앞에서 환자, 지역사회, 그리고 의료진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환자의 유입부터 진료 후 회송까지, 전체 의료 흐름을 설계하며 지역 의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전략적 조직입니다.

병원 1층의 조용한 공간에서, 진료협력센터는 환자의 의료 여정을 설계하고, 본원의 진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환자 중심 서비스를 넘어서 병원의 미래 가치를 설계하는 핵심적 역할로 이어집니다.

2 진료협력센터의 주요 기능

진료협력센터는 1차·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인 본원을 잇는 의료전달체계의 중심 통로입니다. 환자의 진료 예약을 돕는 업무부터 진료 흐름을 조율하는 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진료 전 :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과를 연계**
- **진료 후 : 진료 종료 후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 연계**
- **효과 : 의료 자원 운영의 효율성, 진료 질 향상, 환자 만족도 제고, 병원 성장 기반 마련**

3 진료협력센터의 주요 업무

① **진료의뢰 및 회신 관리**

지역 병·의원에서 의뢰된 환자의 진료를 신속하게 연결하고, 진료 종료 후에는 정확한 회신을 통해 병원 간 신뢰를 구축합니다.

➔ 외부 의뢰 환자 유입 경로 확대 및 외래 기반 강화

② **회송 및 전원 연계**

진료협력센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환자가 지역 병·의원에서 적절한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회송'을 진행합니다.

➔ 병상 운영 효율화, 회송 수가 확보, 환자의 편의성과 만족도 증대

③ **병원 간 네트워크 운영 및 구축**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협력 협약, 간담회, 학술 교류 등을 통해 긴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 지역 의료 허브로서의 기능 강화 및 장기적인 환자 기반 구축

4 외래 및 입원 환자 회송 안내

진료협력센터를 통한 회송은 환자가 보다 가까운 병원에서 편안하고 연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외래 환자 회송 이용 방법

대상

- 급성기 치료 후 재활이나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
- 정기적인 검사 및 처방 위주의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
- 자택 인근 병원에서 지속 치료를 원하는 경우

장점

- 가까운 병원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진료
- 상급병원보다 낮은 비용으로 지속적인 치료 가능
- 사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연속적인 진료 제공
- 건강상태 확인이 용이

절차

- 주치의와 상담 후 회송 여부 결정
- 주치의가 진료협력센터로 회송 의뢰
- 진료협력센터 상담 간호사를 통해 회송 병의원 안내
- 회송 병의원 방문 후 치료 지속

입원 환자 회송 이용 방법

대상

- 급성기 치료 후 통증 조절, 항생제 투약, 재활, 투석 등 추가 입원이 필요한 경우
- 지속적인 재활 및 요양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수술 부위의 상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장점

- 환자 부담금 없음
- 진료협력센터를 통한 회송 시 서류 발급비 무상
- 병실에서 회송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음

절차

- 담당의와 퇴원 및 전원 계획 수립
- 회송 요청서 작성
- 환자 요구에 맞는 병의원 상담 및 선정
- 수용 가능 여부 확인
- 필요한 자료 준비 및 이송 수단 결정 후 회송

5 병원의 내일을 설계하는 '전략실'

진료협력센터의 일은 '의료 전달체계 안에서 병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풀어가는 일입니다.

진료의 흐름을 계획하고, 병상 자원을 고려하며, 의뢰 – 회신 – 회송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조율하는 역할은 병원의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과 직결됩니다.

센터는 '설계자'라기보다는 환자, 보호자, 의료진이 마주하는 작고 복잡한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실행자이자 연결자입니다.

6 진료협력센터와 함께 만드는 미래

진료협력센터는 언제나 환자와 병원, 그리고 지역사회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통해 더 나은 의료 경험과 따뜻한 연결이 가능하기를 기대합니다.

작은 연결이 병원의 전략이 되고, 조용한 손길이 병원의 신뢰를 쌓아갑니다.

"진료협력센터는 병원의 성장과 환자의 만족,
그 사이를 잇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믿음직한 진료, 마음을 다한 치유

-병원 HI 문구 변경 및 공모전 수상 이야기-

글 | **김가연** 간호사 · 간호부(소아청소년과 외래)

Faithful Healing, Trusted Care

올해 초, 병원에서는 20년 가까이 사용하던 기존 슬로건을 새롭게 바꾸는 HI(Hospital Identity) 문구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병원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보자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약 두 달간 총 280명의 교직원들이 참여하여 442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했고, 그 중 제가 제안한 슬로건이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치유하고, 신뢰로 돌봅니다.' 그리고 영어 문구로는 'Faithful Healing, Trusted Care'입니다.

이 문구는 제가 간호사로 일하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생각을 담은 표현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외래에서 아이들과 보호자분들을 만나며, 때로는 불안하고 긴장된 그 순간에 진심을 다한 한마디, 따뜻한 눈맞춤, 조심스러운 손길이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주 체감합니다. 저는 병원이 단순한 치료의 공간을 넘어, 사람을 향한 깊은 돌봄이 실현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Faithful Healing'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고자 하는 우리의 기독교적 정신을 담고 있으며, 'Trusted Care'는 이 병원을 찾는 모든 이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공모전 심의위원회에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슬로건의 방향을 더욱 발전시키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한글 표현이 병원의 핵심 가치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다듬고자, 여러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결과, 보다 간결하고 명료하면서도 병원의 진료 철학과 정체성을 잘 반영한 최종 한글 슬로건 **"믿음직한 치료, 마음을 다한 치유"**가 완성되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직원 조회에서 병원장님으로부터 직접 상장을 받고, 새 슬로건이 적용된 HI 로고와 함께 촬영한 수상 사진을 마주하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쓴 문구가 선정된 것을 넘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환자 한 분, 보호자 한 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문구가 병원 곳곳에서 함께 일하는 교직원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병원을 찾는 분들께는 따뜻한 위로와 신뢰의 메시지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자리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믿음직한 진료, 마음을 다한 치유'의 병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합과 소통의 공간 '칭찬릴레이'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서

환자와 병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료의 모습, 닮고 싶습니다. 칭찬합니다!
일터를 사랑하고, 환자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폈던 초대병원장 故 장기려 박사님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습니다! 칭찬릴레이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바랍니다.

간담도췌장외과 · 이식외과 **임병은** PA간호사 선생님 추천

간담도췌장외과 · 이식외과 **신동훈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교수님 모습에서 많이 배웁니다.
언제나 환자분들을 가족같이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모습.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 모습이 멋지십니다!

간담도췌장외과 · 이식외과 **신동훈** 교수님

뜻깊은 자리에 추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애써주신 간담췌외과·이식외과 모든 교수님, 교직원 선생님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병원의 발전과 후배들의 성장을 위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혈액종양내과 이식코디네이터 **정성미** 책임간호사 선생님 추천

종양전문간호사 권영혜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올해로 19년차이지만 신규 때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해내는 모습을 칭찬합니다. 선배인 저도 한 번씩 많은 일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감당해 내는 모습을 보며 배울 점이 많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환자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한 마디, 한 마디 정성 들이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종양전문간호사 **권영혜** 책임간호사

생각지도 못하게 칭찬 릴레이에 제 이름이 올라 부끄럽고 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모두가 바쁜 가운데 누군가 저를 좋게 봐주셨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칭찬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성실하게, 더 잘하라"는 뜻으로 새기고, 바쁜 날에도 그렇지 않은 날에도 늘 제 자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더 깊이 환자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4병동 **최향숙** 수간호사 선생님 추천

영선계 **남현욱**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영선실의 손길이 특히 많이 필요합니다. 바쁠 때도 일을 넘기지 않고 항상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시고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해주시는 모습에 더욱 고맙습니다.

영선계 **남현욱** 선생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병원을 위해 묵묵히 애쓰는 영선계를 비롯한 시설과와 모든 부서의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칭찬릴레이에 선정되었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는 입원환자와 내원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시설물 점검과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다른 많은 부서 선생님들이 근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영선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원무부 **김찬미** 선생님 추천

흉부외과 외래 **장보영** 책임간호사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항상 분주한 외래 환경 속에서 흉부외과 외래 장보영 책임간호사 선생님께서는 특유의 밝고 환한 목소리로 환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에게도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십니다. 명확한 의사 전달력과 업무 처리 능력으로 환자분들 접수·수납할 때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흉부외과 외래 **장보영** 책임간호사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음에도 칭찬을 받게 되어 쑥스럽습니다. 환자, 보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업무를 하시는 다른 외래 간호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 타부서 선생님들 덕분에 좀 더 환자, 보호자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칭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가을호에서 계속됩니다

2025년 3월 ~ 2025년 5월

내원객이 칭찬해주신 우리 병원 친절직원

3월

문원 교수(소화기내과) | 김재현 교수(소화기내과) | 예영란 수간호사(341병동) | 김혜경 수간호사(351병동) | 박수연 간호사(351병동) | 김현정 간호사(352병동) | 김유진 간호사(352병동) | 정미라 간호사(362병동) | 503병동 | 하진수 간호사(503병동) | 강사랑 간호사(503병동) | 원현지 간호사(505병동) | 하서영 간호사(508병동) | 박순식 간호조무사(511병동) | 석우교 간호사(MCU Ⅰ) | 박보영 간호사(SCU) | 소화기내과 외래 | 이정민 간호사(소화기내과) | 최보배 전담간호사(소화기내과) | 박아림 간호사(심장내과) | 조은세 간호사(정형외과) | 전영진 사원(원무부) | 김현주 간호사(심장검사실) | CT검사실 | 차순덕 주임(사회사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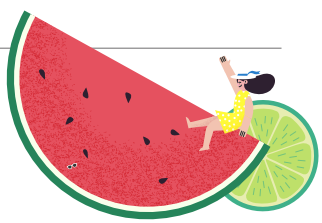
4월

김근태 교수(류마티스내과) | 연규민 교수(소아청소년과) | 김예나 교수(신장내과) | 신성훈 교수(혈액종양내과) | 332병동 | 이은경 수간호사(332병동) | 김현경 간호조무사(332병동) | 권수현 간호사(342병동) |김혜경 수간호사(351병동) | 김유나 간호사(361병동) | 362병동 | 하진수 간호사(503병동) | 정보희 간호사(503병동) | 이주혜 간호사(503병동) | 김민수 간호사(503병동) | 강민경 간호사(504병동) | 문예원 간호사(504병동) | 정지현 간호사(504병동) | 진민경 간호사(MCU Ⅰ) | 최미경 간호사(504병동) | 이재영 간호사(504병동) | 원현지 간호사(505병동) | 이혜주 간호사(505병동) | 임지현 간호사(505병동) | 신현정 수간호사(511병동) | 이준호 간호사(511병동) | 박길량 간호사(MCU Ⅰ) | 권은비 간호사(MCU Ⅱ) | 김효진 간호사(간담췌내과) | 배하경 간호사(간담췌내과) | 이한별 간호사(내분비외과) | 육찬서 간호사(소아청소년과) | 김은아 간호사(소아청소년과) | 김유진 간호사(소화기내과) | 이정민 간호사(소화기내과) | 박선미 간호사(소화기내과) | 임승희 간호사(소화기내과) | 방사선종양학과 외래간호사 | 최은지 간호사(혈액종양내과) | 김연정 간호사(혈액종양내과) | 하윤정 간호사(완화의료센터) | 이지원 사회복지사(완화의료센터) | 이옥자 간호사(주사실) | 서예린 간호사(PRN) | 정세영 간호사(PRN) | 박희규 방사선사(핵의학검사실) | 도윤성 방사선사(영상의학과)

5월

최종순 병원장(가정의학과) | 강지훈 교수(가정의학과) | 김희규 교수(알레르기내과) | 신성훈 교수(혈액종양내과) | 박무인 교수(소화기내과) | 정경원 교수(소화기내과) | 김민주 간호사(혈액종양내과) | 홍지현 간호사(503병동) | 조정희 간호조무사(503병동) | 최은정 주임(원무부) | 최정희 간호사(511병동) | 심장내과 외래 | 서희원 사원(원무부) | 정세영 간호사(PRN) | 김진주 간호사(362병동) | 조하은 간호사(504병동) | 이하연 간호사(가정의학과) | 박도윤 간호사(알레르기내과) | 이지민 간호사(알레르기내과) | 361병동 | 김혜경 수간호사(351병동) | 주사실 | 박하민 간호사(352병동) | 김한나 간호사(호흡기내과) | 510병동 | 정현 수간호사(510병동) | 김아리 간호사(PRN) | 332병동 | 이은경 수간호사(332병동) | 박예은 간호사(332병동) | 박아림 간호사(심장내과) | 이정민 간호사(소화기내과) | 503병동 | 이주아 간호사(352병동) | 김현지 간호사(361병동) | 김영화 수간호사(342병동) | 심효정 간호사(342병동) | 최정식 간호사(342병동) | 이상 간호사(342병동) | 손혜진 간호사(342병동) | 이강대 교수(이비인후과) | 이형신 교수(이비인후과) | 서수림 간호사(507병동) | 이재영 간호사(504병동) | 허수희 간호사(조혈모세포이식치료실) | 소화기내과 외래 | 손찬회 간호조무사(511병동) | 김은숙 주임(원무부) | 정단미 팀원(보안팀) | 유봉구 교수(신경과) | 신경과 외래 | 최한나 간호사(비뇨의학과) | 이지은 교수(내분비외과) | 유방외과 외래 | 김영나 간호사(류마티스내과) | 511병동 | 강미나 간호사(위장관외과) | 유영순 간호조무사(직업환경보건센터) | 왕해진 간호사(신경과) | 박하민 간호사(352병동) | 김구상 교수(유방외과) | 342병동 | 김명연 간호사(신장내과)

최근 3개월 병원에 비치된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고객님의 빠른 쾌유와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칭찬 한마디가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2025.02.21.]

고신대복음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23년(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외래에서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을 실시한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 시설 등 구조적인 부문과 진료과정 및 결과 부문에 대한 평가로 이뤄졌다. 고신대병원은 평가에서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의사 및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건수 △2년 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 비율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 여부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칼슘 ×인 충족률 등 6개 평가지표에서 종합점수 95.8점으로 전국 병원들의 종합전체 평균점수 82.4점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최종순 병원장은 "인공신장센터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적절한 투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병원의 인력, 장비, 시설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신대 간호대 출신 유미선 미술작가, 작품 기증

[2025.03.05.]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미선 작가가 고신대복음병원에 100호 규격의 미술작품 'Garden of lights'을 기부했다. 유미선 작가는 특유의 감성과 사색을 바탕으로 현대미술의 여러 기법을 사용, 추상적 공간의 세계를 전개함으로써 지역 화단에서는 흔치 않은 시도로 일상의 물리적 공간을 추상적 미학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표현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2024년 개인전 Golden Space. BFAA 국제 아트페어, 2024 G-ART 부,울,경 연합전, ART FORMOSA 아트페어, 강변미술제, 한국미술비전25, 낙동강 예술제 등 다수 전시 참여한 작가로 현재 강서 예술인 협회 회원, 금빛사상 회원, 가야현대작가 회원이기도 하다. 유작가는 고신대 간호학과 출신이라는 이채로운 이력도 가지고 있다. 유작가는 "간호대 졸업 후 다른 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했지만 항상 모교와 복음병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 왔다"면서 "기부한 작품은 한지, 천, 벽지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꼴라주 아트로 이 작품이 환자들과 직원들에게 따뜻함과 기쁨, 낙관 그리고 창의성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제 17회 간소화기내과 연수강좌 성료

[2025.03.11.]

고신대복음병원 간소화기센터가 지난 3월 8일 장기려기념암센터 대강당에서 개원의를 위한 '제17회 간소화기내과 연수강좌'를 성료했다. 고신대복음병원 간소화기센터는 매년 개원의를 대상으로 연수강좌를 열어 흔히 접할 수 있는 간소화기질환의 최신 치료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최종순 병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연수강좌는 위장관세션과 간췌담도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소화기내과 문원교수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내시경적 진단' 김재현 교수가 '폴립 절제술: 기초부터 심화까지'라는 주제로, 최근 미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복귀한 정경원 교수가 '해외연수를 통해 살펴본 내시경 분야의 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간췌담도 세션에서는 췌담도내과 이정욱 교수가 '담도계 감염성질환' 간담췌외과 문형환 교수가 '십이지장 경유 유두부 종양 절제술' 간내과 박현준 교수가 '임신과 바이러스간염'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두 세션 사이에 진행된 특강에서는 '복강내에서 발생하는 혈관 질환의 치료'라는 주제로 순서로 부산의대 이상수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최종순 병원장은 축사에서 "간소화기내과 분야의 최신지견을 개원가와 나눌 수 있는 장이 17년째 개최될 수 있어 축하드린다"면서 "계속해서 지역의료와 상생하는 복음병원이 되길 소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 Focus View •

고신대복음병원, 부산 지역 최초 '치유의 종' 행사 진행

[2025.03.21.]

고신대복음병원은 3월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아, 부산 지역 최초로 '치유의 종'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의미 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치유의 종'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설치된 것으로, 이번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 행사는 암 치료를 마친 환자들이 종을 울리며 치료 종결을 축하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환자들에게 큰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치유의 종'은 환자들에게 치료 종결을 알리고, 서로 격려하며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최종순 병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환자들이 치료의 끝을 맞이하며, 서로 응원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환자들이 치료와 회복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치유의 종' 행사 외에도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치료 후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고신대복음병원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4,150명의 신규 암 환자가 등록하였고, 17,860명의 환자가 암 치료를 받았다.

소화기내과 박무인 교수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제 20대 회장 취임'

[2025.03.27.]

소화기내과 박무인 교수가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제 20대 회장에 취임했다. 박 교수는 최근 열린 춘계 학술대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해 앞으로 2년간 학회를 이끌게 됐다.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는 위식도역류질환, 기능성소화불량증, 과민성장증후군, 만성변비 및 난치성 소화기 운동성질환을 다루는 학회로 1993년 창립되어 30년 이상 소화기기능성질환 및 소화기 기능 이상과 연관된 다양한 질환들을 다루는 전문 학회로 자리 잡아왔다. 박무인 교수는 2016년 부산 최초로 경구내시경근절개술을 시행한, 이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2019 미국 소화기병 주간(DDW, Digestive Disease Week) 국제 학술대회에서 개최된 '식도 운동 질환 분류법' 세계 연구자 모임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한 바 있다. 또한 2024년부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직도 수행 중에 있다. 박 교수는 "역대 회장님, 전임 이사장님들과 임원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계승하여 세계적 수준에 있는 우리 학회의 학술 교류와 연구를 통해 소화기 기능성 질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신대복음병원, 진료협력병원 워크숍 성황리 개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사업 박차'

[2025.04.07.]

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 4월 3일(목) 장기려기념 암센터 대강당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진료협력병원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중증도, 난도가 높은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고 경증 환자들은 지역 중소병원들과 협력하게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고신대병원도 이 사업 참여병원으로 선정됐다. 이날 워크숍은 진료협력병원과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 의료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뢰·회송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고신대병원의 67개 진료협력병원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진료협력센터는 향후 지역병의원 및 2차의료기관과의 ▲시스템 적용 병원 확대 ▲정례 실무자 회의 ▲중계시스템 활용 교육자료 배포 등을 통해 협력체계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순 병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협력병원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기반이 더욱 단단해졌다"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중증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Focus View •

성형외과 김윤수 교수 연구팀, 유방암 수술 후 미용적 결과 개선연구 'SCIE급 국제학술지 게재' [2025.04.08.]

성형외과 김윤수 교수 연구팀이 유방암 환자의 종양 위치에 따른 최적의 재건 기법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Cancers'(IF: 4.9)에 발표했다. 'Cancers'는 종양학 분야의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등재 저널 국제적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다. 이번 연구는 "종양성형 유방보존수술에서 종양 위치가 미용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 세 가지 무세포 진피기질 기법의 후향적 비교"를 주제로, 유방암 수술 후 미용적 결과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제시해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연구는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방 형태 보존에 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고신대병원은 유방외과와 성형외과의 긴밀한 협진 시스템을 통해 유방암 환자들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 개인의 체형과 종양 위치에 따라 적합한 수술법을 선택하여 미용적 결과를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믿음직한 진료, 마음을 다한 치유", HI문구(슬로건) 공모전 당선작 발표 [2025.05.17.]

고신대복음병원이 올해 초 두 달간 시행한 'HI(Hospital Identity) 문구 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했다. 당선작 대상에는 김가연 간호사(간호부)가 제출한 'Faithful Healing, Trusted Care(믿음으로 치유하고, 신뢰로 돌봅니다)'이 선정되었다. 공모전 심의위원회에서는 심도 높은 논의를 거쳐 HI 문구(슬로건)의 한글 표현이 병원의 핵심가치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다듬었다. 그 결과 간결하고 명료하면서도 병원의 진료 철학과 정체성을 잘 반영한 최종 한글 슬로건 '믿음직한 진료, 마음을 다한 치유'가 완성되었다. 대상을 수상한 김가연 간호사(간호부)는 "간호사로 일하며 오랫동안 마음에 품은 생각을 담아 표현하였다"며 "병원이 단순히 치료의 공간을 넘어, 사람을 향한 깊은 돌봄이 실현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HI문구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발표된 HI 문구 대상작은 병원 HI에 즉시 반영되어 병원 홍보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7회 외과연수강좌 성료 [2025.05.19.]

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 5월 17일 장기려기념암센터 대강당에서 '제7회 외과연수강좌'를 성료했다. 고신대복음병원 외과는 2017년부터 외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진료실에서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최신 치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연수강좌 참가한 150여명의 참가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3점의 연수평점이 주어졌다. 강좌는 ▲1부 외과적 술기와 영상 ▲2부 외과환자의 만성질환 관리와 초기진단 ▲3부 외과적 경험과 새로운 접근법 이렇게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고신대복음병원 대장항문외과 이승현 교수와 유방외과 김구상 교수, 위장관외과 서경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심장내과 김봉준 교수도 심혈관질환에 대한 강의를 맡기도 했다. 외과 이승현 주임교수는 "지역 외과의들이 함께 최신 지견을 활발하게 교류함으로 부울경 건강지킴이로의 역할과 개원의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말라리아로부터 나를 지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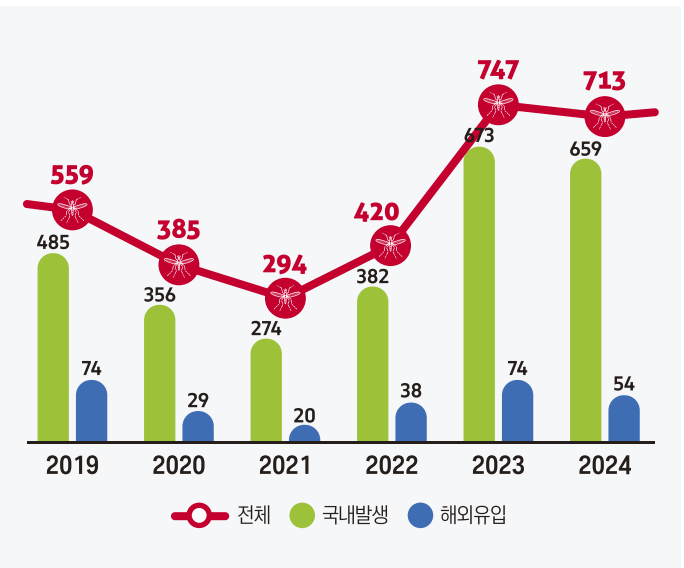
질병관리청

말라리아란?

-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흡혈하면서 전파**되는 감염병입니다.
-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7~30일이지만 여러 요인으로 **최대 2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봄에 출현하여 가을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5월부터 10월까지 주의**하여야 합니다.
- 매개모기는 주로 **풀숲이나 축사 외벽, 벤치 아래 등에서 휴식**하며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활동합**니다.

말라리아 발생현황

- 말라리아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야회활동 증가로 연 700명 내외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발생현황, 출처: 질병관리청]

말라리아 증상

-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피로 등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기침, 가래를 동반하는 감기와 다름
- 특히 국내에 **토착화된 삼일열 말라리아**의 경우 **48시간 간격으로 증상이 반복**됩니다.

- 해외에서 발생한 말라리아는 **대부분 열대열 말라리아**이며, 증상은 삼일열 말라리아와 비슷하지만 열발작이 주기적이지 않습니다.
- 그러나 열대열 말라리아의 경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중증으로 발전하여 24시간 이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치료가 우선**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수칙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

- 해외유입 말라리아는 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감염되므로 이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말라리아는 상용화된 백신이 없으므로 말라리아 위험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여행 전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하여야 합니다.
  *해외감염병NOW를 통해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 **귀국 후 발열 등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KOSin 사랑in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

Jang Gee-Ryeo Memorial Center for Medical Mission, JMCM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의료를 통한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부속 기관으로, 의료선교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 및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평생을 사랑과 봉사, 청빈한 삶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헌신하신 초대병원장 장기려박사님(1911~1995)의 정신을 이어받아,참 의사이자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의료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2025년 상반기 의료선교 활동

1. 김해 다문화 어린이 및 학부모를 위한 의료선교

2025.03.23.(일), 합성초등학교(김해)
2025.05.17.(토), 진영금병초등학교(김해)
2025.05.31.(토), 동광초등학교(김해)

2. 복음 전파, 전도 사역을 위한 지역교회와의 협력

2025.03.29.(토), 현동샬롬교회
2025.04.26.(토), 소망동산교회

3. 의료선교훈련원(11주)

2025.03.13.~2025.05.29. 매주 목요일 저녁, 예배실(1동 3층)

■ 의료선교훈련원 일정

날짜	강사 및 강의 제목
3월 13일	서원민 선교사(KPM 훈련원장) “청년선교운동”
3월 20일	민형래 선교사(CCC 아가페/P국) “전문인 선교(의료)”
3월 27일	옥철호 교수(고신대복음병원 호흡기내과) “선교사 돌봄과 재활”
4월 3일	우상민 원장(부산 샬롬치과) “일터 선교(완전 럭키샬롬이잖아~~)”
4월 10일	최우성 선교사(KPM 연구국장) “현대선교의 동향”
4월 17일	최은정 교수(고신대학교 간호대) “통일한국과 선교전략”
5월 1일	성훈 원장(벧엘의료선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5월 1일	성훈 원장(벧엘의료선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5월 8일	김영대 목사(고신대복음병원 원목실장) “아프리카 선교”
5월 15일	전성진 선교사(KPM M국 선교사) “고신 정신(장기려 박사 중심으로)과 세계 선교”
5월 22일	정원길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완화의학과) “부르심은 변치 않습니다”
5월 22일	조동제 선교사(KPM 본부장) “KPM 선교현황과 전망”

4. 의료선교후원을 위한 미니 바자회

기간 : 2025.05.15.(목) ~ 2025.05.16.(금)

장소 :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정문 주차장

5. 2025년 해외의료봉사 지원

태국 단기 의료 선교(2025.07.17.~2025.07.23.)

남아공 단기 의료 선교(2025.08.07.~2025.08.17.)

■ **참여·협력·후원 문의:**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 (051) 990-5775

원목실 추천도서

원더풀 카운슬러
(잃어버린 상담자, 예수)
한성열 | 규장 | 2025년 5월 2일

책소개

"역사상 최고의 상담자, 예수님에게 배우는 생활상담"
가정이 회복하고, 교회가 살아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진정한 나를 되찾고,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상담 레시피
고려대 심리학과 한성열 명예교수가 40여 년간 현장에서 깨달은 상담의 진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보내는 가장 지적이고도 성경적인 메시지와 위로
한국 교계는 '신앙은 신본주의, 심리학은 인본주의'라고 구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책의 저자 한성열 고려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모태 신앙인이자 학자로서 신앙과 심리학의 통합과 이 둘이 서로 도움이 되도록 40년간 연구와 상담을 계속해 왔다. 그가 이 문제에 그토록 천착하는 이유는 기독교 교리와는 별도로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면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다루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이런 그의 메시지와 함께 가장 탁월한 상담가이신 예수님의 면면을 소개하며, 우리도 그분을 따라 주변인들을 세우고 살리는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과 구체적인 접근법 등을 담았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저자소개 | 한성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기독 중고교에 다니며 평생 기독교와 교회 안에서 생활했다. 심리학을 공부함과 동시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도 많았지만,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컸다. 종교는 '믿음'의 영역이고, 심리학은 '학문'의 영역이기에 양립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인이며 심리학자로서 기독교 교리와는 별도로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면을 이해하려면, 절대자와의 관계까지 다루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그래서 심리학 교수이면서 신학대학원에서도 강의하는 독특한 경력을 갖게 되었다.
한국 교계는 '신앙은 신본주의, 심리학은 인본주의'라고 구분하는 경향이 강하다. 둘이 함께 갈 수는 없으니, 하나를 포기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도 적잖이 받았다. 그가 이 책을 쓴 이유도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신앙인으로서 이 두 영역을 통합하고 서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나름의 소명으로 생각하며 신앙과 심리학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며 살고 있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삶을 허비하지 말라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존 파이퍼 저자(글) | 전의우 번역 | 생명의말씀사 | 2025년 4월 28일

책소개

내 삶의 열정을 바칠 오직 한 가지는 무엇인가?
삶을 허비하느니 잃는 게 낫다!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방향을 잃은 세대에게 다시금 인생의 '진짜 목적'을 던지는 책!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낸다'인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산다'인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다'인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이 모든 것은 허비다. 하나님 없이 이룬 성취, 하나님 없이 쌓은 열심은 끝내 사라질 것들을 위한 삶일 뿐이다. 진짜 허비는 방향 없는 열심이며, 진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데서 시작된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주고 당신을 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에서 당신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에서 당신을 사셨다. 이것이 당신의 삶이 갖는 의미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살겠는가?
[출처: 예스24]

저자소개 | John Piper

기독교 희락주의자, 탁월한 기쁨의 신학자. 미국 처치리포트가 발표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인 존 파이퍼는 대학 시절,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 지금까지 "여호와를 기뻐하라"(시 37:4)는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전하고 있다.
휘튼 칼리지(Wheaton College)에서 문학과 철학을 전공했고,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 학사 학위를, 뮌헨 대학(University of Munich)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들레헴 침례교회(Bethlehem Baptist Church)에서 33년간 담임목사로 섬겼으며, 베들레헴대학 및 신학교(Bethlehem College&Seminary)의 총장으로 섬기고 있다. desiringGod 미니스트리즈를 설립해 모든 설교와 기사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제공,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신앙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전수하고 있다.
저서로는 현대 고전으로 평가받는 대표작 『하나님을 기뻐하라』, ECPA 금메달 수상작인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존 파이퍼의 돈, 섹스 그리고 권력』, 『존 파이퍼가 결혼을 앞둔 당신에게』,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시편을 마음에 채우다』, 『섭리』, 『존 파이퍼의 구원하는 믿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존 파이퍼의 평생 배움』(이상 생명의말씀사) 등이 있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진료를 시작합니다

✚ 전문진료분야
가정의학과 일반진료

✚ 전문진료분야
소화기내과 일반질환

✚ 전문진료분야
근전도검사

✚ 전문진료분야
신장내과 일반질환

✚ 전문진료분야
이비인후 갑상선 두경부외과 일반질환

✚ 전문진료분야
치과보존과 일반진료

✚ 전문진료분야
중증 호흡기 감염질환, 호흡부전,
중환자 호흡재활

외래진료시간표

2025년 6월 기준

※ 대표전화 ☎990-6114, 991-0675, 응급의료센터 ☎990-6119
※ 진료문의는 ☎990-6114, 진료예약은 990-690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가정의학과	최 종 순	화	월,목	비타민 고용량요법, 암의 보완통합요법, 노인의학, 특이증상클리닉(자율신경 실조증), 만성피로클리닉
	공 은 희	월,수, 목	수	비만, 임상영양, 금연, 기능의학
	강 지 훈	화,금	화,금	근골격계 통증클리닉, 자율신경주사, 만성두통, 암 경험자 평생 건강관리, 성인예방 접종, 금연클리닉, 유전체기반 비만 클리닉, 만성피로클리닉, 노인의학
	김 미 수	금	월,화,금	가정의학과 일반진료, 금연, 비만, 예방접종
간담도췌장외과·이식외과	신 동 훈	월,목	월	간, 담도, 췌장, 이식외과
	최 영 일	화,금	화	간이식, 간담도, 혈관, 간담췌클리닉
	문 형 환	수	수,목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희귀질환 클리닉 : 매주 수요일 오후
	조 지 훈	수	화,금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간담췌내과	이 상 욱	월,수	월,수	간,담도,췌장 질환(간암, 간경화증, 급,만성 간염)
	서 광 일	해외연수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박 현 준	화,목	화,목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이 정 욱	월,수,금	목	췌장·담도계 질환 (담석증, 담낭염, 담관염, 담관암, 급·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종)
	조 수 민	화,목,금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감염내과	진 솔	수		감염내과 일반진료
	이 수 진	월, 화	목	감염내과 일반진료
내분비내과	김 부 경	화	월,수	비만,당뇨병,갑상선,골다공증,뇌하수체,부신
	박 성 우	월,수,목	화	당뇨병,갑상선,골다공증
	박 태 훈	화,금	월,목,금	당뇨병,갑상선,골다공증,뇌하수체,부신
대장항문외과	안 병 권	화,목		대장암, 직장암, 대장직장클리닉
	이 승 현	월,수	월,수	대장암, 직장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이 승 훈	금	화,금	대장암, 직장암,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문 예 진		목	대장항문외과 일반진료
두경부갑상선내분비외과	이 지 은	월,화	화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부갑상선질환, 로봇갑상선수술, 갑상선최소절개수술
	김 구 상	수		로봇갑상선수술(경구,액와), 갑상선암, 고주파열치료, 조직검사, 세침검사, 고주파열치료클리닉
류마티스내과	김 근 태	수,금	월,화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체트병, 관절초음파 클리닉, 희귀질환 클리닉 : 매주 금요일 오전
	김 윤 경	월,목	수,금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 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체트병, 관절 초음파클리닉, 희귀질환 클리닉 : 매주 금요일 오후
마취통증의학과	류 시 정	월,목		통증관리
	김 두 식	화	화	통증기전연구, 만성통증치료,암성통증관리
	강 동 희	금	금	급만성통증의학, 암성통증, 부위마취, 대사비만수술마취, 신체감정
	김 지 욱	수	수	통증관리, 중환자의학, 뇌신경마취, 산과마취
방사선종양학과	박 경 란	수,목	화,목	유방암, 간담췌암, 뇌종양, 방사선수술
	마 선 영	화,수	월,수	유방암, 부인과종양, 하부소화기종양
	유 제 상	월,화, 금	화,금	두경부암, 폐암, 흉선암, 식도암, 비뇨기암, 림프종, 혈액암, 피부암, 근골격계종양,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비뇨의학과	류 현 열	월,수		요로종양, 전립선, 신장이식, 종양클리닉
	최 성	화,목	월,목	전립선, 여성비뇨기, 종양, 전립선클리닉, 요실금클리닉
	김 택 상	월,수	수	비뇨기종양, 로봇수술
	강 수 환	화,목	화	로봇수술, 비뇨기암, 결석
산부인과	김 원 규	화,금	화	부인암, 종양, 내시경수술, 로봇수술, 단일공수술
	이 태 화	월,수,목	월	부인암, 내시경수술, 부인종양
	오 영 림	월,목	목	고위험 임신, 조산
	윤 항 구	화,금		모체태아의학, 고위험 임신, 조산, 산부인과 질환 로봇 수술센터
	강 태 경	수,목		일반 부인과 질환, 부인과 내분비학
	김 은 택	수	월	부인질환(심부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난소종양, 자궁탈출증), 부인종양, 부인암, 부인암 유전상담, 폐경, 로봇수술, 내시경수술(부인암 분과전문의)
성형외과	박 진 형	월	월,수	유방재건, 미세수술, 미용
	이 형 석	수,금	수	피부암, 유방재건, 두경부재건, 눈성형, 소아성형, 당뇨발, 욕창
	김 홍 일	해외연수		수부질환, 수부외상, 선천기형, 두개안면외상, 피부종양, 흉터성형
	김 윤 수	화	화,목	유방재건 및 유방성형, 체형성형, 미용/흉터 성형, 피부종양, 안면골절
소아청소년과	홍 유 라	목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이 정 현		월,수,목	성장클리닉(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대사질환(고신장, 사춘기 지연, 갑상선질환, 당뇨병, 저혈당, 비만, 칼슘 및 인 대사 장애, 기타 영양 장애)
	연 규 민	화,수	금	소아신경질환(뇌전증, 편두통, 발달지연, 뇌염, 뇌수막염, 신경근질환, 열성경련)
	공 섬 김	월,목,금	화	소아혈액종양질환(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빈혈, 혈우병, 자반증, 출혈성질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최 소 윤	해외연수		소아소화기영양분과 (소아소화기질환(위장관, 간담췌장), 소아염증성장질환(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영양 질환, 비만, 저체중, 소아위장관내시경)
소화기내과	박 선 자	월,수	월,화	용종(선종), 종양의 내시경적 시술, 소화기암, 진행성암환자 항암치료,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캡슐, 소장), 위 및 대장의 상피하병변(내시경초음파), 위장관 말초림프종, 기능성소화불량, 과민성장증후군, 소화성 궤양
	박 무 인	월,목,금	수	십이지장궤양(식도이완불능증), 내시경 근절개술(POEM, POET), 위식도역류질환, 기능성소화불량증, 헬리코박터 및 상부소화기질환, 소화기암, 진행성암환자의 항암치료,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캡슐, 소장), 용종(선종), 종양의 내시경적 시술
	문 원	화,목	화,목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베체트장염
	김 성 은	화	수,목	위, 식도, 십지이장의 용종(선종), 종양의 내시경적 시술, 식도이완불능증, 내시경 근절개술(POEM), 위식도역류질환,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 관련질환(위알트림프종포함), 위루술
	김 재 현	금	월,수	대장암 클리닉 ,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캡슐, 소장), 용종(선종), 종양의 내시경적 시술(대장폴립절제술위주), 유전성 대장폴립증후군, 대변이식치료, 기타 소화기질환
	정 경 원	화,수,금		치료 내시경(조기 식도암, 조기 위/대장암), 아칼라지아(POEM), 위암, 식도암, 용종, 기능성 소화기질환
	이 명 훈		월,목,금	검사목적의 내시경(위,대장), 일반 소화기 진료
	최 윤 정	수		검사목적의 내시경(위,대장), 소화성궤양, 용종
	손 민 영	목		검사목적의 내시경(위,대장), 소화성궤양, 용종
신경과	유 봉 구	월,화,수	화	뇌졸중,치매,두통, 뇌졸중·치매 클리닉
	김 명 국	수,목	월,화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수면장애
	김 민 정	금	금	파킨슨병, 이상운동질환, 파킨슨병클리닉
	이 진 형	화,금	화	뇌졸중,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치료
	허 소 영			근전도검사
	전 병 준	목	월,수	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말초신경병, 근육병, 희귀질환 클리닉 : 매주 목요일 오전
	나 주 영	월	수,목	두통, 어지럼증, 치매
신경외과	조 혁 래	월,수	월	뇌종양,두개저종양, 삼차신경통, 안면경련
	박 정 현	화,목	화	뇌혈관 중재적 수술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김 도 연	월	월,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위증, 척추종양, 척추변형, 두부외상, 척추외상
	심 용 우	수, 금	금	뇌혈관질환, 뇌종양, 뇌혈관중재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이 학 수	월	수,목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혈관내 수술, 급성 뇌경색 신경중재치료, 자발성 뇌출혈, 외상성 뇌출혈, 신경계 중환자치료

외래진료시간표

2025년 6월 기준

※ 대표전화 ☎990-6114, 991-0675, 응급의료센터 ☎990-6119
※ 진료문의는 ☎990-6114, 진료예약은 990-690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신장내과	임 학	월,수,목	수	신장질환, 사구체질환, 신증후군, 만성신부전(만성콩팥병),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생체이식,혈액형불일치이식, 뇌사이식)
	정 연 순	화,목	화,목	다낭콩팥병클리닉, 신장이식, 만성콩팥병, 급성신손상, 당뇨병성콩팥병, 사구체신염(혈뇨, 단백뇨), 요로감염, 다낭콩팥병클리닉: 매주 목요일 오후
	신 호 식	월,수	월,수,목	신장이식, 투석, 신부전, 사구체신염, 당뇨병성 콩팥병, 노인성 콩팥질환, 요로감염, 신장이식클리닉:매주 금요일 오전
	김 예 나	화,금	월,화	신장질환
	양 우 식		금	신장질환
심장내과	차 태 준	월,화,금	월,화,목	고혈압,협심증,심부전,부정맥,임상심장전기생리학, 침습적심장학,세포심장학
	허 정 호	월,수,목	화	심혈관 중재시술,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심장재활, 부정맥, 흉통클리닉, 고혈압클리닉
	임 성 일	월,수,목	수	부정맥, 급사 및 실신,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김 봉 준	금	월,화,목	심부전, 폐고혈압
	김 수 진	화,목	수	순환기, 심장초음파, 심장판막질환, 고혈압, 심부전, 협심증, 여성심장
심장혈관흉부외과	박 성 달	월,목		일반흉부, 폐암, 종격동종양
	김 종 인	화	월,화	일반흉부, 폐기종, 기흉,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다한증, 흉부외상, 하지정맥류
	조 성 호	수	화,수	성인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이 해 영	월,목	월	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정맥질환, 흉부외상, 성인심장질환, 체외막산소화장치, 하지정맥류
	고 택 용	금	수,목	폐암, 종격동종양, 흉강경 및 로봇수술
안과	이 상 준	화,목	월	망막, 포도막, 백내장, 안외상, 눈물길, 유리체망막클리닉, 포도막염클리닉
	이 승 욱	월,수	목	녹내장, 백내장, 각결막질환
	김 창 주	금	화,수	사시, 소아안과, 신경안과, 안종양, 안외상, 눈물길, 근시
	이 승 하		수,목,금	신생아 망막, 일반안과
알레르기내과	김 희 규	월,수,목	월,목	만성기침, 기관지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알레르기, 급만성 두드러기, 혈관부종, 접촉성 피부염, 약물 알레르기, 호산구증가증, 각종 알레르기 질환, 면역결핍질환
	최 길 순	연수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오 지 현	화,금	화,수	만성기침,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등
완화의학과	정 원 길	월,화,수,목		호스피스 완화의료
	공 섬 김		월	소아혈액종양질환(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빈혈, 혈우병, 자반증, 출혈성질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위장관외과	윤 기 영	월,목	월	위장,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서 경 원	화,수	화	비만대사수술, 위암수술, 탈장수술, 외과대사영양학
	김 기 현	금	수,금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비만대사수술
	김 윤 홍		목	복강경, 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비만대사수술
유방외과	정 성 의	화,목	화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Young age 유방암, 유방양성질환
	김 구 상	월	월,목	로봇유방암수술, 유전성 유방암, 입체정위생검, 유방암 경험자 클리닉
	최 진 혁	수,금	수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입체정위생검, 유방양성질환
	최 제 민		금	유방외과 일반질환
응급외과	정 주 원		화	응급외과
	김 영 식		수	응급외과
이비인후갑상선 두경부외과	이 강 대	월,목,금		갑상선 수술, 부갑상선 수술, 신경모니터링 수술
	이 환 호	목	수	중이염, 어지럼증, 이명, 난청, 인공와우이식
	권 재 환	수,금	화	중이수술, 난청, 이명, 어지럼증, 귀의 염증, 삼출성 중이염, 고막질환, 소아 귀 질환, 인공와우이식, 선천성 이개질환, 귓불 첼로이드, 중이 진주종 비과: 축농증, 비성형, 안면재건, 안와골절, 비골골절, 코피, 산재 특별 진찰
	이 형 신	월,수	화	두경부 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성대 보톡스, 성대 필러
	김 주 연	화	월,목	부비동 내시경 수술, 코성형술,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질환, 코골이, 알레르기, 수면 무호흡증, 코피, 코성형 클리닉
	김 영 준	화	수,금	두경부 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인후통, 편도, 성대, 혀마름, 임파선 비대, 목의 혹, 입술
	서 윤 수			이비인후 갑상선 두경부외과 일반질환
재활의학과	심 영 주	목	월,수,목	소아재활, 림프부종 재활, 근골격계 질환, 암재활
정신건강의학과	김 호 찬	목	월,수	공황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치료, 재발방지클리닉 및 낮병동(조현병, 기분장애)
	이 상 신	월,수,금		자문조정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암환자 정신건강 클리닉
	김 현 석	화,목	화	소아청소년과 정신의학(ADHD, 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소아청소년 기분장애/불안장애 등)
	전 공 의	월,수,금	월,수,금	정신건강의학과 일반진료
정형외과	권 영 호	월	수	수부, 주관절, 흉곽출구증후군
	정 소 학	화,목		근골격계종양, 고관절, 대퇴부
	김 창 수		월,수,목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의 척추질환, 척추종양, 척추측만증을 포함한 척추기형, 척추외상
	김 지 연	해외연수		족부(발, 발목) 질환 및 외상, 당뇨발 및 창상(고압산소치료)
	심 대 무	월,수,목,금	화	척추질환, 척추 비수술적 치료
직업환경의학과	김 정 원		월	신경독성학, 직업성 알레르기 질환(천식, 피부),직업성 암, 직업병 산재보상, 업무적합성 평가
	정 지 현	화,금	화,금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배 현 숙	월,목	월,목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오 현 철	월	화	근골격계 산업재해 특별진찰,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관련성평가
치과	김 희 진	연수		치과보존과
	서 고 은	화,수,금	금	구강악안면외과 일반질환(구강내 종양, 감염, 외상, 임플란트, 매복치, 턱관절 질환 및 기타 치과 질환)
	강 은 숙	화,수,금	화	치과 보철과 일반질환
	김 민 경	월,목	수,목	치주과 일반진료
	우 혜 문	월	월,수,금	치과보존과 일반진료
피부과	장 민 수	월,수	월,수	여드름/주사, 건선, 손·발톱색소질환
	박 종 빈	화,목	화,목	피부종양, 피부암, 알레르기피부질환
	서 기 석	화,금	금	피부암, 무좀 및 진균성질환, 모발질환, 수포성질환 및 결체조직질환, 혈관질환
	성 설 화	연수		피부가려움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피부질환, 백반증, 건선
핵의학과	김 희 영		월	핵의학과 일반진료
	김 범 수		수	핵의학과 일반진료
혈액종양내과	신 성 훈		월,화,수,목,금	위암, 대장암, 두경부암, 폐암, 간담도암, 유방암, 비뇨기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이 호 섭	화,목	월,화	다발골수종, 악성림프종,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암 및 혈액질환
	이 은 미	수,목	월,목	위암, 대장암, 유방암, 담낭암, 췌장암, 난소암, 자궁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김 다 정	월,수,금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암 및 혈액질환
호흡기내과	정 만 홍	금	화	폐암,천식,기관지염,결핵,폐렴,만성폐쇄성폐질환
	장 태 원	월,수,목	수	폐암,천식,만성기관지염,결핵,폐렴,만성폐쇄성폐질환
	옥 철 호	화	수,목,금	폐암, 천식,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 폐질환
	김 태 윤		월	호흡기내과 일반진료

초대병원장 **장기려** 박사

우리는 그를
아름다운 의사라 부릅니다.
마음까지 치료한 의사라 부릅니다.
의로운 의사라 부릅니다.
바보의사라 부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를 닮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뜻을 살려 헌신하길 원하는
백년의 약속

우리는 그를 존경하며 오늘도
전인치유를 실천 합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발전기금 바로가기